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설 경 옥[†]

김 유 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을 형제가 공유하는 양육환경으로 개념화 하여 부모의 차별의 방향(상대적 평가)과 상관없이 부모의 차별양육정도가 심할수록(절대적 평가) 선호되거나 차별받는 형제 모두의 자존감에 부정적이며 이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형제를 쌍으로 모집하였고 총 16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64쌍(128명)은 양측형제 모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부모의 차별적 양육의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와 형제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는 상관 분석과 각 형제 쌍을 차별 점수에 따라 비교하여 '선호집단'과 '차별집단'으로 구분하고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차별적 양육의 상대적 평가는 형제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반면 절대적 평가는 형제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가족 내에 형제에 대한 차별이 많이 존재할수록 형제는 누가 선호되고 차별받는지에 상관없이 양쪽 다 낮은 자존감과 높은 거부민감성을 보였다. 또한 선호집단 형제와 차별집단 형제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의 평균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환경으로써 형제가 지각한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절대적으로 평가된 차별적 양육행동은 형제의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이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하였다. 공유된 환경으로써 부모의 차별이 형제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갖는 함의를 논의에 포함하였다.

주요어: 형제관계, 자존감, 차별적 양육, 거부민감성, 공유된 환경

[†]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주요 변인(Sowislo & Orth, 2013)이자 심리적 자산인 자존감은 가족 내에서 부모, 형제와 같은 가족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한다(Olsen, Breckler, & Wiggins, 2008). 자존감은 사회 비교(Festinger, 1954)의 심리적 기제를 통해 발달하고 형제는 사회적 비교 기준을 제공하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Göncü & Sümer, 2011). 인생초기부터 부모를 공유하는 형제는 사회 비교 대상으로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두고 불가피하게 경쟁하게 되고 부모의 차별대우에 민감하고 작은 차별의 단서에도 불안해질 수 있다(김언경, 2014). 부모의 차별적 양육은 부모가 특정 자녀를 다른 자녀에 비해 더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더 관대하게 자녀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Adler(1932)는 일찍부터 개인의 심리적 발달 문제에 있어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형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근래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형제의 자존감이나 심리적 기능의 부적 관계가 밝혀졌다. 예를 들면, 형제관계와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가장 최근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Buist, Deković, & Prinzie, 2013) 부모의 차별적 양육의 정도가 클수록 형제의 내재화 문제(효과크기 $r=.14$)와 외현화 문제($r=.18$)가 모두 유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Daniels와 Plomin(1985)은 한 집안 내의 형제가 경험하는 양육환경을 '공유된 환경'과 '공유하지 않은 환경'으로 나누었다. 형제는 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유하지만 부모가 선호하거나 차별하는 자녀들은 같은 가정 내

에서도 부모의 차별적 양육이라는 '공유되지 않은 환경'을 경험한다. 그러나 부모가 누구를 더 선호 혹은 차별하는지가 아닌 차별적 양육 행동을 하는 자체는 자녀 모두가 경험하는 '공유된 환경'이다. 다시말해, 집안 내 차별의 존재 유무와 그 정도는 형제가 동시에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발달과정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Jensen, Shawn, Fingerman, & Birditt, 2013; Zervas & Sherman, 1994).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을 '공유된 환경'으로 접근하여 가족 내에서 형제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부모의 차별양육행동과 형제들의 자존감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형제의 자존감과의 부적 관계를 설명할 심리적 기제로 부모와 같은 친밀한 대상에게서의 거부 경험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거부민감성(Downey & Feldman, 1996)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유된 환경으로서의 부모의 형제 차별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개인차를 설명하는 역사는 19세기 Darwin의 진화론부터 시작하여 심리학의 태동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왔다. 행동유전학에서는 유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환경의 효과를 다시 가족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공유된 환경'의 효과와 개인이 가족 구성원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공유되지 않은 환경'의 효과로 구분한다(허윤미, 2000). 한 집안 내에서 자란 형제는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부모의 직업과 같은 가족환경을 공유하고 이러한 가족변인은 형제간 유사성을 설명하는 '공유된 환경'이다(Daniels & Plomin, 1985). 부

모의 형제 차별은 '공유되지 않은 환경'으로써 같은 가정환경 내에서도 형제간에 발생하는 개인차를 밝히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Daniels & Plomin, 1985).

초기 형제 연구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을 공유되지 않은 환경으로 접근하여 형제가 다르게 경험하는 차별의 방향과 심리사회적 발달의 관계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차별 받는 형제에게는 더 높은 우울(Shanahan, McHale, Crouter, & Osgood, 2008), 낮은 자기 가치감(McHale, Crouter, McGuire, & Updegraff, 1995), 문제행동(Kiracofe, 1992)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증상이 일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선호되는 형제에게는 상충된 결과가 나타났다는데 선호되는 형제는 높은 학업적 유능감(위현아, 박성연, 2011), 높은 학업 및 직업적 성취(Kiracofe, 1992)와 같은 긍정적 결과도 있었으나 높은 자기중심적 성향, 형제와의 높은 경쟁의식과 죄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Zervas & Sherman, 1994)과 같은 부정적 결과도 동시에 존재했다(Bieber, 1977). 이와 같이 차별의 방향에 따른 비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부모의 형제에 대한 차별적 양육을 공유되지 않은 환경으로 간주하고 선호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검증했기 때문일 수 있다.

형제 관계에 대한 이 후 연구를 통해 선호의 방향보다는 가족 내에 차별의 존재유무가 형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유된 환경으로써 형제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이 밝혀졌다(Kowal, Kramer, Krull, & Crick 2002). 즉, 부모가 얼마나 공정한 혹은 차별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같은 집안의 형제 모두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형제관계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가장 최근 메타 분석(Buist et al., 2013)에 의하면 집안 내에 존재하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 정도가 클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기능과 형제관계의 질은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더 혹은 덜 선호하는지와 같은 차별의 방향보다 부모가 얼마나 형제를 공정하게 대우하는지와 일관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McHale, Updegraff, Jackson-Newsom, Tucker, & Crouter, 2000). 형제가 어머니의 대우를 공정하게 인식할수록 형제관계의 질이 더 높았고(Kowal, Krull, & Kramer, 2006), 심리적 안녕감과 자존감도 더 높았다(Kowal et al., 2002). 부모양육에서 형제에 대한 차별 정도가 작은 경우가 가장 우울지수가 낮았고 차별의 정도를 더 크게 지각할수록 더 선호되는 쪽과 덜 선호되는 쪽 형제 모두 우울지수가 더 높았다(Jensen et al., 2013). 홍콩 청소년들의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지각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차별의 방향과 자살사고는 상관이 없었고, 차별의 방향에 상관없이 가정 내에 형제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각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사고를 더 많이 했다(De Man, Wong, & Leung, 2003). 부모의 차별적 양육을 공유된 환경으로 연구한 국내 논문은 김언경(2014)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형제를 차별할수록 형제간의 상호작용은 부정적, 갈등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형제의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김언경(201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에 대해 형제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가 보고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형제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자존감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응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형제 차별과 자존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oyle et al., 2004; Atzaba-Poria & Pike, 2008). 부모의 차별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발달하고(Harter, 1983) 중요한 타인의 반응과 태도, 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형성된다(Rosenberg, 1979). 사회비교 이론에 의하면 자존감은 가깝고 의미 있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형성되고, 형제는 그 가용성과 중요도에 있어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비교 대상이 된다. 부모가 자신보다는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자란 경우, 자신을 그 선호 받는 형제와 비교하며 자신의 결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부모에게 애정을 덜 받게 되는 것이라 귀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다(Feinberg, Neiderhiser, Simmens, Reiss, & Hetherington, 2000). 이러한 형제간 비교는 불공평함, 부당함 그리고 관계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데(Boyle et al., 2004), 이러한 부모의 차별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감은 비단 차별받는 형제뿐 아니라 선호 받는 형제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선호 받는 형제 역시 부모의 차별적 양육을 겪으면서 자신도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부모의 자신을 향한 애정과 관심 역시 조건적이라고 느껴 선호 받는 형제의 자존감도 낮을 수 있다.

형제관계에서 개인이 부모의 차별적인 양육

행동을 지각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제 차별의 방향에 따른 자존감 연구에서는 차별 받는 형제는 일관적으로 더 낮은 자존감을 보였으나 선호 되는 형제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보다 상대형제를 더 선호하고 본인을 더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신나나, 도현심, 2000; 최명선, 송현정, 2012). 그러나 부모의 편애를 받는 아동에게서 편애 정도와 자존감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Felson & Zielinski, 1989; Manning, 1989).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차별적 양육 경험이 없었던 집단과 부모에게 차별 받았다고 보고한 집단 그리고 부모에게 선호 받았다고 보고한 집단의 자존감을 비교한 결과 부모의 차별적 양육 경험이 없었던 집단의 자존감이 가장 높았고, 선호 받은 집단 그리고 차별 받은 집단 순서로 자존감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Zervas & Sherman, 1994). 이처럼 부모로부터 선호 되는 것과 높은 자존감은 관련이 없거나 일관되지 않았던 반면 차별자체와 자존감과의 관련성은 일관적으로 부적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의 방향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가 아닌 형제모두에게 공유된 환경으로서 차별 자체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형제 모두의 자존감과 관계를 연구하고자 했다.

부모의 차별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

가족 내에서 차별적 양육을 경험한 형제는 상대형제와 비교하여 부모에게 수용 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고 선호되는 형제 역시 같은 가족 내에서 이를 공유하며 언

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거부에 민감해질 수 있다. Downey와 Feldman(1996)은 이처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수용될 것인지 거절당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성을 일컬어 거부민감성이라 정의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관계에서의 거부를 쉽게 기대하고 그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을 갖고 있어 사소한 거부의 단서에도 과도한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하게 된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 거부민감성의 이론적 뿌리는 애착이론으로써 거부민감성은 과거 관계에서의 거부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부민감성은 하나의 방어체계인데 개인은 이전에 거부당했던 고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고, 거부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거부 경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작은 거부의 단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부모의 차별 대우와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밝힌 국내외 논문은 아직 없으나 거부민감성이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를 경험하며 발달함에 따라(Downey & Feldman, 1996) 가정 내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경험하며 자란 형제 모두의 거부민감성은 높을 수 있다. 형제는 서로가 부모로부터 받는 대우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칭찬이나 온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관찰하며 학습한다(Whiteman, McHale, & Crouter, 2007). 선호 되는 형제는 직접적인 거부경험은 적게 할지라도 상대 형제에게 경험되는 차별적 대우를 민감하게 관찰할 기회가 많아지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학습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의 또 다른 이론적 기반은 인지정서 정보처리 이론이고 거부민감성과 행동

간에는 ‘만약..., 그렇다면(if...then)’의 도식이 작동한다(Ayduk et al., 2009). 형제관계에서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차별한다면,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존재일거야.’ 혹은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를 차별한다면, 나 역시 언젠가 차별받고 거부 될 수 있어.’와 같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관계에서의 인정과 거부 경험에 따라 불안정하게 높고 낮아짐을 반복하며(Göncü & Sümer, 2011), 이러한 불안정을 반복하여 경험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진다(Leary & Baumeister, 2000). Leary, Tambor, Terdal과 Downs(1995)는 ‘사회적 측정자(sociometer)’ 이론으로 자존감의 근원과 기능을 설명했는데 자존감의 기능은 개인이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지는지, 배척되는지를 주시하여 사회적으로 배척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측정자 이론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타인에게 거절 혹은 배척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타인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존감이 높다. 반면 타인에게 거절,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한 개인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존감의 사회적 측정자 이론의 핵심인 관계 내에서의 수용과 거부에 대한 민감성은 거부민감성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의 차별적 양육은 차별 받는 형제에게는 직접적인 거부경험으로 선호 받는 형제에게는 간접적이지만 잠재적으로 자신도 겪을 수 있는 거부 경험으로 작용하여 형제 모두의 거부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고, 거부 민감성이 높은 형제는 사회적 관

계에서 거부와 배척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 질수 있다(홍상황, 2013; Ayduk et al., 2009).

연구가설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형제모두가 경험한 공유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가설 1은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절대적 평가)은 부모가 자신을 선호하였는지 혹은 차별하였는지의 차별의 방향(상대적 평가)과는 상관없이 형제 모두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에 부정적인지를 상관 분석과 형제쌍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가설 2에서는 가설 1을 통해 검증된 부모의 차별적 양육의 절대적 평가와 자존감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써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유된 환경으로써의 형제차별, 자존감, 거부민감성의 관계 검증

가설 1.1 형제차별을 공유된 환경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차별의 방향(상대적 평가)에 상관없이 지각된 부모의 차별의 정도가 심할수록(절대적 평가) 양측 형제 모두의 자존감은 부적, 거부민감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형제차별을 공유된 환경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형제 쌍 중에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애정적이며 덜 통제적인 대우를 받는다 고 지각한 '선호집단'과 상대형제가 부모에게 더 애정 받으며 덜 통제받는다 고 지각한 '차별집단' 간 거부민감성과 자존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차별적 양육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검증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절대적 차별적 양육행동이 클수록 형제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이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 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여자 대학생 103명과 이들의 형제 82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형제가 두명 이상인 16명의 경우 가장 가까운 나이의 형제 한명만 선택 하게 하였다. 조사 절차에서 설문에 참여한 전체 185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과 나이가 각각 40, 42세의 극단치로 판단된 형제 한 쌍, 부모가 사별한 형제 한 쌍을 제외하고 남 41명, 여 128명의 총 169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중 128명은 같은 집안의 양측형제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총 64쌍의 형제쌍이 포함되었다. 형제 쌍의 성별구성은 여-여 31쌍, 남-여(여-남) 33쌍 이었다. 연구대상자 169명 모두의 형제관계는 친생형제였고, 현재 본인의 형제와 동거중인 대상자는 115명, 동거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는 54명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3세($SD=3.13$) 최소값은 15세, 최대값은 33세 였다. 형제간 나이차의 평균은 3.4세($SD=1.68$)였고 나이차의 최소값은 1세, 최대값은 10세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직업은 대학교 재학 121명, 중·고등학교 재학 18명, 고등학교 졸업 7명, 대학교 졸업 16명, 대학원 이상 7명이었고 이들의 부모 혼인 상태는 기혼 163명, 별거 3명, 이혼 3명이었다.

측정도구

차별적 양육행동

개인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Daniels와 Plomin(1985)이 제작한 SIDE(Sibling Inventory of Differential Experience) 중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Differential Treatment Scale을 신나나와 도현심(2000)이 한글로 번안한 차별적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와 모가 형제와 비교해서 형제 중 어느 쪽에 애정과 관심을 더 보이는지의 차별적 애정(예: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십니까?) 5 문항과 형제 중 어느 쪽에 더 부정적 평가와 엄격함을 보이는지의 차별적 통제(예: 누구를 더 자주 꾸중하십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누구에게 더 벌을 주십니까?) 5문항 두 하위영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제는 부모와 모 각각에 대한 차별적 애정과 차별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해 답했으며 ‘형제자매를 훨씬 더’(1점), ‘형제자매를 약간 더’(2점), ‘똑같이’(3점), ‘나를 약간 더’(4점), ‘나를 훨씬 더’(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SIDE는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의 두 가지로 점수화 할 수 있다. 차별적 양육의 정도와 방향을 볼 수 있는 상대적 평가는 차별적 애정과 차별적 통제차원 각각의 점수의 합산이 높을수록 부모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많이 편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 평가 점수는 차별적 통제 차원을 역채점 하여 차별적 애정 차원과 합산하여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상대형제보다 자신을 더 편애 한다고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형제 중 어느 쪽이 더 선호되는지와 상

관없이 가족 내에 공유된 환경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차별적 양육의 정도인 차별적 양육행동의 절대적 평가의 경우는 ‘3점(똑같이)’은 0점, ‘2점(형제자매를 약간 더)’과 ‘4점(나를 약간 더)’은 1점, ‘1점(형제자매를 훨씬 더)’과 ‘5점(나를 훨씬 더)’은 2점으로 재 점수화 하여 합산하였다. 절대적 평가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부모의 차별적 애정과 차별적 통제가 누구를 향하는지의 방향과는 상관없는 가족 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어머니의 경우 차별적 애정 .74, 차별적 통제 .87, 아버지의 경우 차별적 애정 .75, 차별적 통제 .89 이었다.

자존감

개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 자신감, 만족도, 자기 존중감, 자기 비하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을 포함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존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수준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이 중 8번 문항(나는 내가 스스로를 더 존중했으면 좋겠다)의 경우 초등학교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요인부하량이 .3이하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 하였을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본 연구에서도 이자영 외(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8번 문항의 항목 전체 상관이 .3이하로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제외하였다. 8번 문항은 기존에도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문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Schmitt & Allik, 2005). 8번 문항을 삭제한 국내 연구(이자영 외, 2009)에서 대학생 집단의 내적 신뢰도는 .89였고,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90이었다.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를 이복동(2000)이 번안 및 타당화하고 이를 문희경(201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본 연구 참여자인 중, 고등학생부터 성인에 걸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선생님(교수님), 동아리(클럽) 등으로 학교상황에 대한 질문에 몇몇 단어를 괄호 안에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거부민감성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두 상황(친구에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탁한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은 중, 고등학생이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나 현재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응답자는 각 상황에 대하여 일어날 결과에 대해 불안 및 염려되는 정도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대 정도를 Likert식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반응에 불안 및 염려 점수와 허용에 대한 기대점수를 역코딩하여 합산한 후 상황 수로 나눈 값이 거부민감성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불안 및 염려의 내적

신뢰도는 .91, 거부기대의 내적신뢰도는 .88, 전체 거부민감성의 내적신뢰도는 .92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인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의 방향과 그 정도(상대적 평가) 또는 방향과 상관없이 개인이 지각한 집안 내 차별적 양육이 존재하는 정도(절대적 평가)와 자존감, 거부민감성이 상관이 있는지 보기 위해 부모의 차별적 양육에 대한 상대적 평가, 절대적 평가 각각에 대하여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가 본인을 더 선호한다고 지각한 '선호집단'과 상대형제를 더 선호한다고 지각한 '차별집단'의 형제쌍 간에 거부민감성과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차별적 양육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해 전체 참가자에 대하여 AMOS 18.0을 사용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 검증을 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인 차별적 양육행동의 상대적평가 그리고 절대적평가,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전체 N=169)

	차별적양육행동 상대적 평가 ¹⁾				차별적양육행동 절대적평가 ²⁾				자존감	거부민감성				
	부 애정	부 통제	모 애정	모 통제	부 전체	모 전체	부 애정	부 통제			모 애정	모 통제		
전체평균	15.26	15.06	15.04	15.44	30.20	29.60	2.17	2.18	2.40	2.17	4.34	4.56	34.52	7.67
표준편차	2.60	3.10	2.77	3.04	4.63	4.65	2.09	2.35	2.29	2.49	3.93	4.25	5.91	3.47
최소값	5.00	7.00	6.00	7.00	10.00	12.00	.00	.00	.00	.00	.00	.00	19.00	1.00
최대값	23.00	25.00	24.00	25.00	44.00	45.00	10.00	10.00	9.00	10.00	20.00	18.00	45.00	20.25
왜도	-.10	.63	.18	.55	-.49	-.09	1.12	1.13	.85	1.12	1.24	1.09	-.39	.62
첨도	2.17	1.50	1.32	1.83	3.08	2.70	.97	.98	-.12	.53	1.80	.77	-.31	.69

1)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많이 편애하거나 통제함.

2) 점수가 높을수록 방향에 상관없이 형제간에 차별이 많이 존재함.

거부민감성, 자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왜도와 첨도는 표 1과 같다. 상대적 평가는 차별적 양육의 방향과 정도를 나타내며 ‘차별적 애정’, 과 ‘차별적 통제’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많이 편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전체’에서는 통제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부 혹은 모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편애하며 덜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절대적 평가는 어떤 형제가 더 선호되는지와 상관없이 가족 내에 존재하는 차별적 양육의 정도만을 보여주며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부모의 차별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공유된 환경으로써의 형제차별, 자존감, 거부민감성 검증 결과

가설 1.1 형제차별을 공유된 환경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차별의 방향(상대적 차별)에 상관없이 지각된 부모의 차별의 정도가 심할수록(절

대적 차별) 양측 형제 모두의 자존감은 부적, 거부민감성과는 정적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1.1을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별적 양육행동은 전체 점수와 함께 하위요인으로 아버지로부터의 애정적, 통제적 차별, 어머니로부터의 애정적, 통제적 차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부, 모의 전체 차별점수의 경우 애정적 차별점수에 통제적 차별점수를 역산하여 더한 점수로 총합을 구했다. 차별적 양육행동의 평가는 차별이 본인에게 향해있는지 상대형제에게 향했는지의 방향과 함께 차별의 정도를 보는 상대적 평가, 방향과 상관없이 차별의 정도만을 보는 절대적 평가의 두 가지로 점수화하여 각각의 경우에 자존감과 거부민감성과 상관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차별의 모든 차원(부와 모의 애정, 통제)과 거부민감성, 자존감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즉, 개인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차별적 대우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둘째, 차별의 방향과

표 2. 차별적 양육행동(상대적평가)과 자존감, 거부민감성 간의 상관계수 (N=169)

	1	2	3	4	5	6	7	8
1 차별(상대적평가)_부애정 ³⁾	1							
2 차별(상대적평가)_부통제 ⁴⁾	-.32**	1						
3 차별(상대적평가)_모애정 ⁵⁾	.28**	-.10	1					
4 차별(상대적평가)_모통제 ⁶⁾	-.08	.58**	-.28**	1				
5 차별(상대적평가)_부전체 ⁷⁾	.77**	-.85**	.22**	-.43**	1			
6 차별(상대적평가)_모전체 ⁸⁾	.22**	-.44**	.78**	-.82**	.41**	1		
7 자존감	.06	-.08	.07	-.07	.09	.09	1	
8 거부민감성	.12	-.04	-.05	.10	.09	-.09	-.53**	1

* $p < .05$, ** $p < .01$

- 3)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애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함
- 4)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통제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함
- 5)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애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함
- 6)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통제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함
- 7)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함
- 8)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상대형제보다 본인을 더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함

상관없이 양측 형제가 지각한 가족 내 차별의 존재 정도가 심할수록 즉 절대적 평가 값이 높을수록 차별의 정도의 모든 차원(부와 모의 애정, 통제)에서 일관적으로 거부민감성,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표 3). 이 결과는 형제가 상대적인 차별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형제 사이에 절대적인 차별의 존재를 더 크게 지각할수록 더 낮은 자존감, 더 높은 거부민감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차별의 방향과 형제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은 상관이 없고 차별의 정도가 심할수록 양측 형제 모두의 낮은 자존감, 높은 거부민감성과 상관이 있다는 가설 1.1이 검증되었다.

가설 1.2. 형제차별을 공유된 환경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형제 쌍 중에서 상대적으로 본인

이 더 애정적이며 덜 통제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한 ‘선호집단’과 상대형제가 부모에게 더 애정 받으며 덜 통제받는다고 지각한 ‘차별집단’ 간 거부민감성과 자존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형제의 거부민감성과 자존감이 상대적인 차별의 방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대적 평가로 측정된 형제쌍의 차별적 양육행동척도 점수를 비교하여 한 가족 내에서 본인이 상대형제보다 더 애정 받고 덜 통제받는다고 지각한 형제를 ‘선호집단’으로, 상대형제가 더 애정 받고 덜 통제받는다고 지각한 형제를 ‘차별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을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차별적 양육행동척도의 상대적 평가 전체 합산 점수

표 3. 차별적 양육행동(절대적평가)과 자존감, 거부민감성 간의 상관계수 (N=169)

	1	2	3	4	5	6	7	8
1 차별(절대적평가)_부애정 ⁹⁾	1							
2 차별(절대적평가)_부통제 ¹⁰⁾	.56**	1						
3 차별(절대적평가)_모애정 ¹¹⁾	.75**	.50**	1					
4 차별(절대적평가)_모통제 ¹²⁾	.48**	.81**	.58**	1				
5 차별(절대적평가)_부전체 ¹³⁾	.87**	.90**	.70**	.74**	1			
6 차별(절대적평가)_모전체 ¹⁴⁾	.69**	.74**	.88**	.90**	.81**	1		
7 자존감	-.29**	-.21**	-.20**	-.24**	-.28**	-.24**	1	
8 거부민감성	.32**	.31**	.26**	.30**	.36**	.31**	-.53**	1

* $p < .05$, ** $p < .01$

- 9)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본인과 형제를 애정적 측면에서 차별대우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각함
- 10)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본인과 형제를 통제적 측면에서 차별대우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각함
- 11)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본인과 형제를 애정적 측면에서 차별대우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각함
- 12)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본인과 형제를 통제적 측면에서 차별대우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각함
- 13)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본인과 형제를 애정 및 통제적 측면에서 차별대우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각함
- 14)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본인과 형제를 애정 및 통제적 측면에서 차별대우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각함

를 한 집안의 형제 쌍 간에 비교하여 선호 형제와 차별 형제로 집단을 나누었다. 상대적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형제보다 본인이 더 애정을 받고 덜 통제받는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차별지각 점수에서 상대형제의 점수를 뺀 값을 계산하여 차이가 없으면 0, 뺀 값이 양수면 1, 음수면 2로 코딩하였고 (Alexander, Shwan, Karen, & Kira, 2013), 1로 코딩된 집단을 '선호집단(부모가 본인에게 더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이라고 느낀 집단), 2로 코딩된 집단을 '차별집단(부모가 상대형제에

게 더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이라고 느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양측형제 모두 설문에 참여한 128명의 총 64쌍의 형제쌍 중 점수 차이가 없어 0으로 코딩된 두 쌍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62쌍 124명이 대응표본 t검증에 최종 포함되었다.

상대적인 차별의 방향에 따라 나누어진 선호집단과 차별집단 간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 평균점수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선호집단과 차별집

표 4. '선호집단'과 '차별집단'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 비교 (N=124)

	선호집단	차별집단	차이점수 (선호-차별)	유의도
자존감	34.72(6.05)	34.82(5.94)	-.10(7.63)	$t=-.10, p=.92$
거부민감성	6.79(3.18)	6.66(3.18)	.12(3.74)	$t=.25, p=.80$

단 간의 자존감($t=-.10, p>.05$)과 거부민감성($t=.2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이는 가설 1.2의 선호형제집단과 차별형제집단은 지각된 차별의 방향에 상관없이 비슷한 정도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 점수를 가진다는 가설이 참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가설 2. 지각된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다.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절대적 평가)은 부모가 자신을 선호 하였는지 혹은 차별하였는지의 차별의 방향(상대적 평가)과는 상관없이 형제 모두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에 부정적이라는 가설 1이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지각된 차별의 정도가 자존감을 부적적으로 예측하고, 그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차별적 양육행동(절대적 평가)으로 측정되는 '차별의 정도' 변인은 아버지가 본인과 형제를 애정적으로

그리고 통제적으로 차별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합산하여 계산한 '부'의 차별의 정도와 어머니가 본인과 형제를 애정적으로 그리고 통제적으로 차별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합산하여 계산한 '모'의 차별의 정도의 두 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거부민감성' 변인은 거부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인 '불안 및 염려'와 허용에 대한 기대를 역산한 '거부기대'로 구성하였으며 '자존감' 변인은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역산한 값으로 구성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와 NFI가 .90이상,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8이하이면 적절한 합치도라고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연구모형의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chi^2=9.435, df=6, p=.151$ 로 해당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992, TLI=.970, NFI=.978, 그리고 90%신뢰구간 .000에서 .126에서 RMSEA=0.058로 연구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차별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심할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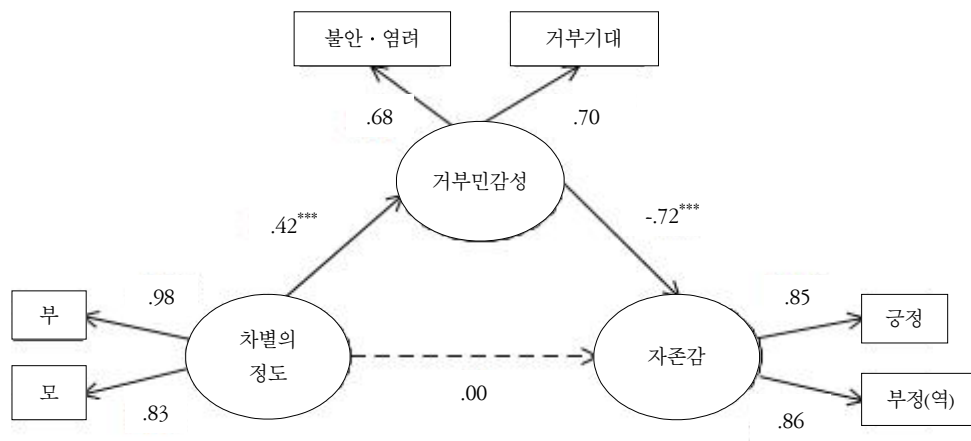


그림 1. 거부민감성이 차별의 정도와 자존감을 매개하는 구조방정식 매개모형

거부민감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beta=.42, p<.001$)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유의하게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2, p<.001$). 차별적 양육행동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beta=.00, p=.963$)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차별적 양육행동(절대적평가)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그림1).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원자료에서 5000개의 표본을 무선타당으로 만들어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차별의 정도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자존감에 이르는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33, Bias-corrected CI=[-.430, -.119]$).

논 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친밀한 관계인 형제관계는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Buist et al., 2013). 세상이나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 자존감은 유아기부터 가족 내에서 부모,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Eccles, 1999). 본 연구에서는 형제차별의 공유된 환경적 접근 그리고 자존감의 사회적 측정자(sociometer) 이론(Leary et al., 1995)에 근거해 부모의 형제에 대한 차별적 양육은 선호되거나 차별받는 형제 모두에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 양쪽 형제 모두의 자존감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부모의 차별과 자존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임을 가정하였다. 형제 쌍 양쪽 모두

를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더 받는 선호집단, 부모에게서 애정이나 지원을 덜 받고 통제의 대상이 되는 차별집단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존감이 더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자존감과의 부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누구를 더 차별하느냐 하는 상대적인 차별의 방향과 가족 내에 차별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하는 절대적인 차별의 정도, 자존감, 그리고 거부민감성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은 상대적 차별의 방향과는 상관이 없었고, 절대적 차별의 정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즉, 집안 내에 형제에 대한 차별이 많이 존재할수록 형제는 누가 선호되고 차별되는지에 상관없이 양쪽 다 거부민감성은 더 높았고, 자존감은 더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을 더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 각 형제 쌍을 상대적 차별 점수에 따라 '선호집단'과 '차별집단'의 형제쌍으로 구성하여 자존감과 거부민감성 차이에 대해 검증한 결과 역시 선호집단과 차별집단에서 자존감과 거부민감성의 평균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호의 방향성 보다 부모의 공평한 대우를 지각하는 것이 형제의 사회 정서적 안녕감에 더 긍정적이었던 연구(Kowal et al., 2002), 부모의 편애의 방향과 자존감 간에는 상관이 없었다는 연구(Manning, 1989)와 일치한다.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차별적 양육이 형제모두에게 '공유된 환경'으로 지각된 가정 내 차별의 존재 정도가 자존감,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제가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차별의 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형제 모두의 거부민감성이 높았고,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형제의 자존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자존감 발달에 중요한 심리적 기제는 사회비교이고(Festinger, 1954),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근거리에서 존재하는 형제는 개인의 자존감 발달에 중요한 비교 대상이다. 부모가 형제를 차별하여 양육할 때 개인은 자신의 가치가 불안해지고, 언제든지 친밀한 대상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거부민감성이 더 발달할 수 있다. 사회적 측정자 이론으로 접근하면 형제관계에서 비교의 핵심은 형제보다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인정과 사랑을 덜 받느냐 일 것이다. 자존감에 대한 사회적 측정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정과 사랑을 받느냐 혹은 거부와 냉대를 받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Leary와 동료들(1995)은 인정과 사랑으로 인한 자존감의 향상과 거부와 냉대로 인한 자존감의 하락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따라서 부모의 차별적 양육은 형제의 자존감 발달에 있어 더욱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차별받는 형제는 선호되는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부모의 불공정한 처우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려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선호되는 형제는 차별받는 형제를 보며 자신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즉 거부민감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선호되는 형제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게 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관계에서의 부정적 피드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Foster, Kernis, & Goldman, 2007).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들은 상대의 피드백에 따라 자존감이 불안정하게 높고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다(Göncü & Sümer, 2011). 부모의 차별적 양육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아진 형제는 발달과정에서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더 경험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졌을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첫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가족 내에서의 형제 쌍을 대상으로 '공유된 환경'으로써의 집안 내 차별의 정도에 양측 형제의 자존감과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도 하였고 대다수의 연구는 한 명의 형제의 보고만으로 형제관계에 대해 연구하였거나 장애아동형제와 비장애아동형제의 특성(조염미, 마주리, 2007; 정대영, 홍화진, 2011) 및 외동아와 형제아를 비교하는(김숙경, 1989; 김병태, 1998)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형제쌍을 대상으로 부모, 형제관계에서의 역동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갖는 함의를 연구한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 본 연구는 부모가 형제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차별적 양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의의가 있다. 현실에서 부모의 차별적 양육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다소의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자녀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다면 차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owal, Krull, & Kramer, 2004; 이선영, 임지영, 2014).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는 최대한 차별 없는 양육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작은 차별적 양육의 단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녀를 위해 자녀가 차별을 지각

했을 때 자녀를 이해시키는 노력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장면에서 가족 관련 문제는 대부분의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이고 이중 형제관계, 형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전귀연, 임주영, 2006). 본 연구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은 형제 모두에게 공유된 환경으로써 차별의 방향과 상관없이 형제의 자존감에 부정적 함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모의 차별과 그로 인한 형제와의 경쟁 혹은 갈등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는 가족관계 뿐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거부에 더욱 민감할 수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더 경험할 수 있다. 차별적 양육의 정도가 심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인정과 사랑을 보이는 경우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Leary와 동료들(1995)의 자존감의 사회적 측정자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에 있어 아주 작은 부정적 경험은 아주 강력한 긍정적 경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단 하나의 부정적 사건도 수많은 긍정적 사건을 상쇄 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사회적 측정자의 핵심은 사랑과 인정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의 측정이 아니라 거부와 냉대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차별적 양육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양육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정서적 문제를 보고한다. 본 연구 결과는 내담자의 관계에서의 불안감인 거부 민감성에 대한 호소 그리고 낮은 자존감 호소 문제를 이해하는데 발달적 관점을 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

언은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성인기 초기이고 청소년 중, 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차별적 양육행동은 발달의 단계에 따라 그 영향력의 강도가 다를 수 있고, 차별적 양육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더 클 수 있다(Buist et al., 2013). 그러나 성인기에도 부모의 차별적 양육에 부정적 영향은 지속되며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에 대한 중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기에 한번 선호되었던 자녀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itor, Gilligan, & Pillermer, 2013).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형제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별히 부모의 차별이 아동,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Suitor et al., 2013)에 따라 중단 연구를 통해 아동기부터 시작된 부모의 차별적 양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절대적 차별과 자존감의 부적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을 발견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이외에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형제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형제관계에서의 갈등과 질투가 부모의 차별과 자존감의 또 다른 매개변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차별적 양육은 형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존감이 하락될 수 있다(Rauer & Volling, 2007). 또한 선호되는 형제가 차별받는 형제에게 느끼는 죄책감, 스트레스가 낮은 자존감의 또 다른 매개변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103명과 그들의 형제 82명을 연구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부모의 차별, 거부민감성, 그리고 자존감의 관계를 설명할 가족의 구조적 변인, 예를 들면 형제자매의 성차 구성, 출생순위, 나이 차이 등을 분석에 포함시킬 만큼 충분한 표본수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남-남으로 구성된 형제 쌍은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물론 형제연구에서 성차, 출생순위와 같은 구조적 변인이 점점 중요시 되지 않는 추세이나(전귀연, 임주영, 2006), 이전의 관련 연구들에서 여아의 경우에만 자존감이 부모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상미현, 김지신, 도현심, 1999) 차별적 양육이 개인 적응에 주는 영향은 형제의 성구성과 성별에 따라 다르고 이성으로 구성된 형제쌍의 여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Tamrouti-Makkink, Dubas, Gerris, & van Aken, 2004)도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의 확보와 남-남 형제 쌍을 포함한 표본에서 형제자매의 성차 구성, 나이 차이와 같은 구조적 변인을 고려하고도 본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병태 (1998).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교육*, 7(1), 172-189.
- 김숙경 (1989).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10(1), 43-63.
- 김언경 (2014). 어머니가 인식한 형제 차별 대우, 형제 상호작용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9(3), 5-24.
- 문희경 (2013). 고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상미현, 김지신, 도현심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1), 115-124.
- 신나나, 도현심 (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99-113.
- 위현아, 박성연 (2011).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가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49(1), 17-25.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임지영 (2014).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2), 63-84.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 전귀연, 임주연 (2006). 형제관계. 서울: 신정.
- 정대영, 홍화진 (2011). 장애아동 형제자매와 비장애아동 형제자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정서지능 및 심리적 안녕감 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33-57.
- 조염미, 마주리 (2007).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 형제집단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복지연구*, 5(1), 25-39.
- 최명선, 송현정 (2012). 형제자매 갈등 대처하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허윤미 (2000). 행동유전학 방법을 통한 인간 행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101-112.
- 홍상환 (2013).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2(1), 69-8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ler, A. (1932).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A. Porter (Ed.), London: Allen & Unwin.
- Atzaba-Poria, N., & Pike, A. (2008). Correlate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Parental and contextual factors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9(1), 217-232.
- Alexander, C. J., Shwan D. W., Karen L. F., and Kira S. B. (2013). "Life still isn't fair":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of young adult sibling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438-452
- Ayduk, Ö., Gyurak, A., & Luers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Boyle, M. H., Jenkins, J. M., Georgiades, K., Cairney, J., Duku, E., & Racine, Y. (2004). Differential maternal parenting behavior: Estimating within and between family effects on children. *Child Development*, 75(5), 1457-147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ist, K. L., Deković, M., & Prinzie, P. (2013).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and psychopatholog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1), 97-106.
- Bieber, I. (1977). Pathogenicity of parental prefe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5(3), 291-298.
- Daniels, D., & Plomin, R. (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747-760.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De Man, A. F., Wong, I. N., & Leung, P. W. L. (2003). 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and suicidal ideation in Hong Kong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3), 245-251.
- Eccles, J. S. (199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 ages 6 to 14. *The Future of Children*, 9(2), 30-44.
- Feinberg, M. E., Neiderhiser, J. M., Simmens, S., Reiss, D., & Herberington, E. M. (2000). Sibling comparison of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in adolescence: Gender, self-esteem, and emotionality as mediators of the parenting adjustment association. *Children Development*, 71(6), 1611-1628.
- Felson, R. B., & Zielinski, M. A. (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oster, J. D., Kernis, M. H., & Goldman, B. M. (2007). Linking adult attachment to self-esteem stability. *Self and Identity*, 6(1), 64-73.
- Göncü, A., & Sümer, N. (2011). Rejection sensitivity, self-esteem instability, and relationship outcomes. *European Psychologist*, 16(4), 303-313.
- Harter, S. (1983).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formerly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Paul H. Mussen, editor.
- Jensen, A. C., Whiteman, S. D., Fingerman, K. L., & Birditt, K. S. (2013). "Life still isn't fair":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of young adult sibling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2), 438-452.
- Kiracofe, N. M. (1992). Child-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and self-reported person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48(3), 349-356.
- Kowal, A., Kramer, L., Krull, J. L., & Crick, N. R. (2002).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parental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eir socio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3), 297-306.
- Kowal, A. K., Krull, J. L., & Kramer, L. (2004). How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is linked with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658-665.
- Kowal, A. K., Krull, J. L., & Kramer, L. (2006). Shared understanding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in families. *Social Development*, 15(2), 276-295.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62.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McHale, S., Crouter, A., McGuire, S., & Updegraff, K. (1995). Congruenc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Links with family relations and children's well-being. *Child Development*, 66, 116-128.
- McHale, S. M., Updegraff, K. A., Jackson-Newsom, J., Tucker, C. J., & Crouter, A. C. (2000). When does parents' differential treatment have negative implications for siblings? *Social Development*, 9, 149-172.
- Manning, P. C. (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Olsen, J. M., Breckler, S. J., & Wiggins, E. C. (2008). *Social psychology alive*. Toronto: Thomson Nelson.
- Rauer, A. J., & Volling, B. L. (2007). Differential parenting and sibling jealousy: Developmental correlates of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4*(4), 495-51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NY: Basic Books.
- Schmitt, D. P., & Allik, J. (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623-642.
- Shanahan, L., McHale, S. M., Crouter, A. C., & Osgood, D. (2008). Linkages between parents' differential treatment, youth depressive symptoms, and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480-49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213-240.
- Suitor, J., Gilligan, M., & Pillemer, K. (2013). Continuity and change in mothers' favoritism toward offspring in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5), 1229-1247.
- Tamrouti-Makkink, I. D., Dubas, J. S., Gerris, J. R. M., & van Aken, M. A. G. (2004). The relation between the absolute level of parenting and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with adolescent siblings'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1397 - 1406.
- Whiteman, S. D., McHale, S. M., & Crouter, A. C. (2007). Explaining sibling similarities: Perceptions of sibling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7), 963-972.
- Zervas, L. J., & Sherman, M. F.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 25-33.

1차원고접수 : 2018.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2. 23.
최종게재결정 : 2018. 03. 05.

Sibling's 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and Self-esteem: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Kyoung Ok Seol

Youna Kim

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paper, we conceptualized parental favoritism in the shared environment of siblings. We hypothesized that siblings' self-esteem would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regardless of the directions of favoritism. Furthermore, we hypothesiz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and siblings' self-esteem. A total of 169 sibling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ran correlational analyses among relative scores and absolute scores of parental favoritism, self-esteem, and rejection sensitivity. We also performed a paired *t* test between the "favored group" and the "non-favored group". We found that absolute scores of parental favoritism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blings' self-esteem and rejection sensitivity. However, relative scores of parental favoritism were not. In other words, both siblings showed lower self-esteem and higher rejection sensitivity when they perceived more parental favoritism regardless of the directions of favoritism within the fami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avored group and the non-favored group in terms of self-esteem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 final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bsolute scores of parental favoritism and siblings' self-esteem. We discuss implications of parental favoritism in the shared environment of siblings on their psycho-social development.

Key words : parental favoritism, shared environment, siblings, rejection sensitivity, self-esteem